

재난안전마을 구축을 위한 의식조사 연구

A Study on the Consciousness Survey for the Establishment of Safety Village in Disaster

구원회^{a,1}, 백민호^{b,*}

Wonhoi Koo^{a,1}, Minho Baek^{b,*}

^a Member, Department of Disaster Prevention, Professional Graduate School of Disaster Prevention Kangwon National University

^b Corresponding Author, Member, Professor, Department of Fire & Disaster Prevention, Kangwon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directions for establishing a disaster safety village in rural areas where damage from a similar type of disaster occurs repeatedly by conducting the consciousness survey targeting at experts and disaster safety officials in a local government.

Method: The risks of disaster in rural areas were examined and the concept and characteristics of disaster safety village which is a measure on the basis of Myeon (township) among the measures of village unit were examined in order to carry out this study. In addition, opinion polling targeting at officials-in-charge in the local government and survey targeting at experts in disaster safety and building village were conducted. Based on the findings, the directions for establishing a disaster safety village that fitted the characteristics of rural areas were examined.

Result: The officials-in-charge in the local government answered that rural areas have a high risk of storm and flood such as heavy snowing, typhoon, drought, and heavy rain as well as forest fire, and it is difficult to draw voluntary participation of farmers for disaster management activities due to their main duties. They also replied that active support and participation of residents in rural areas are necessary for future improvement measures. The experts mostly replied that the problem of disaster safety village project is a temporary project which has low sustainability, and the lack of connections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local governments and residents was stressed out as the difficulties. They said that measures to secure the budget and the directions of project promotion system should be promoted by the central government, local governments and residents together.

Conclus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a disaster safety village should be established in consideration of the disaster types and characteristics. Second, measures to secure the budget for utilizing the central government fund as well as local government fund and village development fund should be prepared when establishing and operating a disaster safety village in rural areas. Third, measures to utilize a disaster safety village in rural areas for a long period of time such as the re-authorization system should be prepared in order to continuously operate and manage such villages after its establishment. Fourth, detailed measures that allow residents of rural areas to positively participate in the activities for establishing a disaster safety village in rural areas should be prepared.

KEYWORDS

Rural Areas,
Disaster Safety
Villages,
Expert,
Disaster Safety
Officer of Local
Government,
Consciousness
survey

연구목적 : 본 연구는 유사 유형의 재난으로 반복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농촌지역에 재난안전마을을 구축하기 위해 전문가 및 지방자치단체 재난안전 담당자 의식조사를 통해 구축방향을 검토하고자 함이다.

연구방법 :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농촌지역의 재난 위험성을 살펴보고 마을단위의 대책 중 면단위의 대책인 재난안전마을에 대한 개념 및 특성을 검토하였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의견조사와 재난안전 및 마을만들기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농촌지역 특성에 맞는 재난안전마을 구축 방향을 검토하였다.

연구결과 : 본 연구의 결과에서 지방자치단체 담당자 의견을 살펴보면 농촌지역은 폭설, 태풍, 호우 등의 풍수해와 산불에 의한 위험성이 높다고 응답하였고 농민의 주 업무로 인해 재난관리활동의 자발적인 참여가 어렵다고 응답하였다. 향후 개선대책에는 농촌지역 주민의 지원 및 참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응답했다. 전문가의 의견을 살펴보면 재난안전마을 사업의 문제점은 단발성 공모사업 위주로 사업이 지속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가장 높았으며 애로사항은 중앙, 지자체, 주민의 연계성이 부족하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적절한 예산확보방안은 정부, 지자체, 주민이 함께 추진해야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사업추진체계 방향은 중앙정부, 지자체, 주민이 함께 추진해야한다고 응답하였다.

결론 : 본 연구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재난유형 및 특성을 고려한 재난안전마을이 구축되어야 한다. 둘째, 농촌지역 재난안전마을 구축 및 운영 시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마을 조성 기금까지 활용할 수 있는 예산확보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농촌지역 재난안전마을 구축 후 지속적으로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재공인제도 등 장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넷째, 농촌지역 주민이 재난안전마을 구축을 위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세부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농촌지역,
재난안전마을,
전문가,
지방자치단체
재난안전 담당자,
의식조사

* Corresponding author. Tel: +82-33-540-3134, Fax: +82-33-540-3149, E-mail: bmh@kangwon.ac.kr

1 Tel. 82-10-9771-3721. Email. kwh@kangwon.ac.kr

ARTICLE HISTORY

Received May. 1, 2018

Revised May. 4, 2018

Accepted Sep. 22, 2018

1. 서론

우리나라 농촌지역은 유사의 재난이 유사지역에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또한 주변의 하천과 산림지역이 인접되어 있어 집중호우, 태풍 등으로 인한 하천 범람, 산사태 등으로 주택, 농경지, 비닐하우스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구원희, 최윤정, 백민호; 2016.10). 특히, 2017년 7월에 발생한 충청지역 호우피해를 살펴보면 집중호우로 인해 천안, 청주, 진천, 괴산, 증평 등의 지역에서 하천 범람, 주택 침수, 산사태, 농경지 유실, 농작물 피해 등 다양한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최근에도 집중호우로 인해 농촌지역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구조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농촌지역 주민의 피해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농촌지역에 재난안전대책을 수립하여 투자대비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재해유발인과 지역과의 연계를 통하여 피해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이 우선시 되어야 하며, 국가의 방재서비스 또한 재해발생요인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재해발생요인을 발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될 필요가 있다.(백민호, 이지향; 201.06)

따라서 농촌지역은 재난으로 인해 피해가 현상 복구가 아닌 방재적인 측면을 고려한 복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마을 단위의 면적인 방재대책이 추진되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농촌지역에 특화된 재난안전마을 구축을 위한 세부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구원희, 백민호; 2017.09)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유사 유형의 재난으로 반복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농촌지역에 재난안전마을 구축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첫째, 농촌지역의 재난 위험성을 살펴보았다. 둘째, 마을단위의 면적인 방재대책인 재난안전마을에 대한 개념, 특성 및 현황을 검토하였다. 셋째, 지방자치단체 재난안전 담당자를 대상으로 농촌지역 재난안전에 대한 의견조사와 재난안전 및 마을만들기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현실태 및 개선점을 도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농촌지역 특성에 맞는 재난안전마을 구축을 위한 방향을 검토하였다.

2. 농촌지역 재난안전마을 구축을 위한 이론적 검토

2.1 농촌지역의 재난 위험성

우리나라 농촌지역은 하천, 강, 산 주변에 마을을 형성하고 있으며 논, 밭, 비닐하우스 등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으며 특히, 특히, 2013년에 조사된 70대 이상 농가인구를 살펴보면 전체 농가인구에 약 26%인 약 75만 명이 차지하고 있으며 30년 전인 1983년에 조사된 5%보다 5배 이상.(구원희 외 2명; 2016) 높아질 만큼 고령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도시에 비해 도로 포장율이 낮고 비포장 된 도로도 상당 수 존재하고 있으며 교통으로 인한 접근성이 낮다.

이러한 농촌지역에 유사유형의 재난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피해를 일으키는 특성을 보이며 재난 중 자연재난인 풍수해로 인한 피해가 높게 나타나며 주변 환경인 하천이나 산악으로 인해 집중호우, 태풍 등으로 하천 범람, 주택 침수, 산사태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고령화된 인구로 인해 재난 발생시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부분도 농촌지역이 재난으로부터 위험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이다.

2007년부터 2016년 10년간 자연재난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현황을 살펴보면 한해 평균 16명의 인명피해가 나타났고 평균 630,801백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다. 자연재난 유형별 피해액을 살펴보면 태풍이 171,390백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로 호우(139,433백만원), 대설(22,687백만원), 풍랑(7,762백만원), 강풍(4,564백만원), 지진(1,101백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설별 피해액 현황 중 농경지 피해액은 10년간(2007~2016) 평균 13,706백만원(2.2%)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2011년에 14,307백만원으로 평균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는 농촌지역에 자연재난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위험한 것을 알 수 있다.

다음 Fig. 1은 2007~2016년간 자연재난 유형별로 인한 피해액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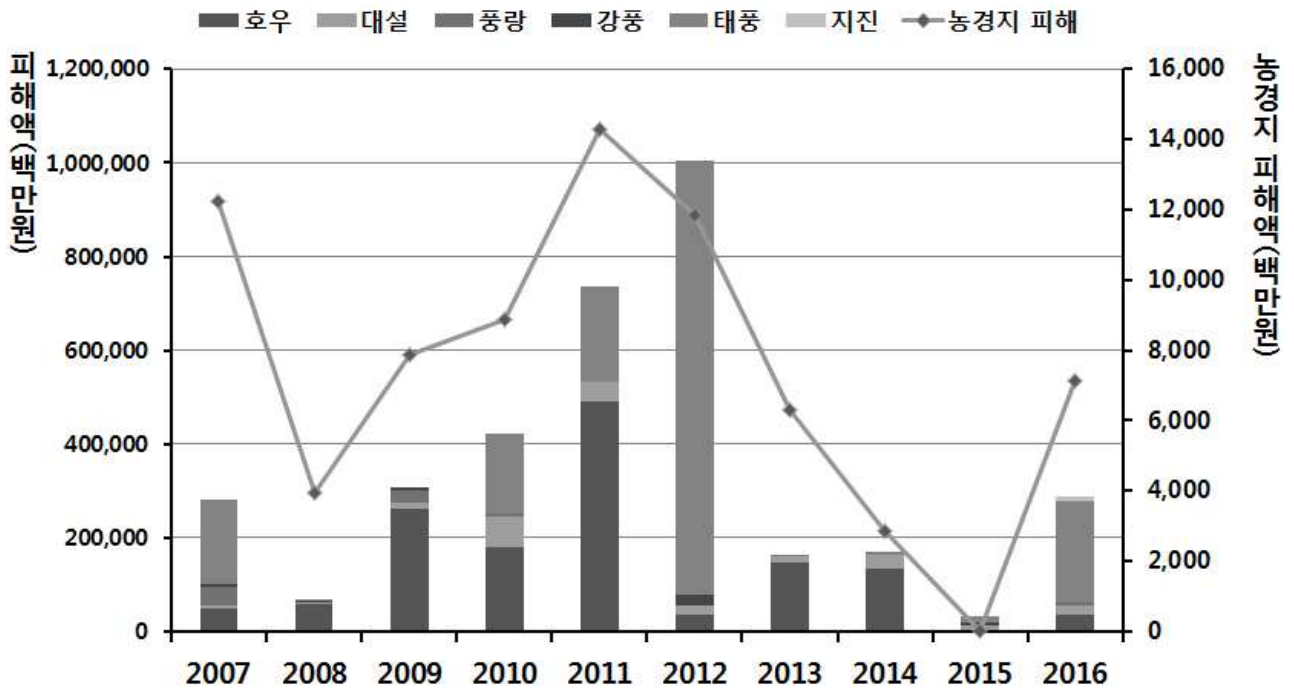


Fig. 3 Damage Status by Type of Disaster between 2007 and 2016

출처 : 국민안전처(현 행정안전부), 2016 재해연보 각색, 2017.09.11

2.2 농촌지역 재난안전마을 개념 및 구축 현황

‘농촌지역 재난안전마을’의 개념은 농업을 중심으로 하는 비 도시지역에서 자연재난, 사회재난의 발생(반복적으로)으로 피해를 경험하여 시설적인 대책을 갖추고 재난 발생 시 주민이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공동체가 모인 마을(커뮤니티)이다. 이러한 개념은 과거 방재마을,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을 더불어 선행 연구상에서도 관련 개념은 정립되어 있었으며 이러한 개념을 바탕으로 농촌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에 맞게 정립하여 활용하고 있다. 또한 재난안전마을 만들기의 기본개념은 방재성, 환경성, 경제성을 바탕으로 공공기관(정부), 기업 등의 민간부분, 주민공동체가 함께 이루어져야 하며 효율적인 방재, 환경 친화적인 방재, 지속가능한 방재를 검토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개별적인 대책에서 종합적인 대책으로 변화되어야 하고 특히, 재난유형이나 시설물 설치 시 연계성이 이루어져야 하며 점적인 대책에서 면적인 대책과 주민주도적인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농촌지역 재난안전마을은 과거부터 다양한 곳에서 수행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대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은 강원도 인제군 가리산리 재난안전체험마을이다. 이 곳은 2006년 태풍 에위니아 및 집중호우로 인해 7명의 인명피해와 42,040백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으며, 복구 시 방재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주민이 참여하여 복구활동을 실시하였으며 특히, 현재까지 누구나 체험할 수 있는 재난안전체험마을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 마을은 마을 단위 사업으로 실시하여 소요 예산규모를 축소하고 사업내용은 가급적 2006년 수해로 후 복구시 설치된 방재시설을 활용하였으며 계획과 운영의 주체가 정부(행정)이 아닌 주민이 되도록 하였고 정부는 지원하는 체계로 운영하였다. 또한 이 재난안전체험마을로 쇠퇴해가는 농산촌의 부흥 수단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즉, 마을 기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현재까지 마을주민들이 마을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재난으로부터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체 마을조직인 자율방범대를 2007년에 창립하였으며 마을 자체 방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훈련을 실시할 뿐만 아니라 소방,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합동훈련도 실시하고 있다. 마을이장, 자율방재단, 자율방범대 등이 중심이 되어 조직적인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가리산리 마을은 수해 후 하천제방 및 고수호안, 암거 및 통관, 교량, 양수장 및 취수보, 사방댐 등의 방재시설을 설치하였으며 방재체험마을, 대피소 등에 대한 정보가 있는 표지판을 설치하여 마을 주민과 이 마을을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과거 재난이 발생한 이력과 방문시 주요시설의 위치, 대피로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농촌지역 재난관리실태 파악을 위한 지자체 담당자 의견조사

3.1 의견조사 개요

농촌지역의 재난관리 실태를 파악하여 향후 농촌지역 재난안전마을 구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재난안전 담당자 인터뷰 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2차례를 통해 23명의 지방자치단체 재난안전 담당자를 대상으로 인터뷰조사를 실시하였으며 Table 1의 내용과 같이 조사를 실시하였다.

Table 5. Summary of Opinion Survey

Classification	Contents
Purpose of survey	Interview survey targeting relevant personnel in the local government to determine the disaster management status in rural areas
Survey period	June 2015 - September 2015 (1st), September 2017 - October 2017 (2nd)
Survey method	Interview through a questionnaire
Number of survey respondents	23 disaster-related government officials in the local government (Male: 17, Female: 6)
Contents of surve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isk of each disaster type in rural areas - Problems of disaster prevention education and training for residents in rural areas - Level of disaster safety measures in rural areas - Necessity of detailed measures to establish disaster safety villages in rural areas

3.2 의견조사 결과

지방자치단체 재난안전 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의견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농촌지역의 재난유형별 발생 위험성을 살펴보면 폭설로 인한 피해가 16%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로 태풍(15%), 산불(15%), 호우(14%), 가뭄(9%), 산사태(8%) 등 순으로 나타났으며 대부분이 풍수해로 인한 피해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Fig. 2).

농촌지역 주민 대상 방재교육 및 훈련 시 문제점을 살펴보면 농업 등의 주 업무로 인한 참여 어려움이 52%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로 농촌 주민 맞춤형 교육 콘텐츠 부족(18%), 재난안전에 대한 관심 부족(17%), 교육·훈련 장비 및 물자 부족(9%), 개인비용 지출로 인한 미참여(4%) 순으로 나타났다(Fig.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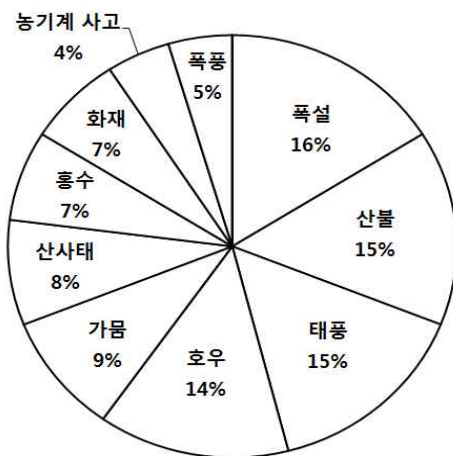


Fig. 4 Risk of Occurrence of each Disaster Type in Rural Area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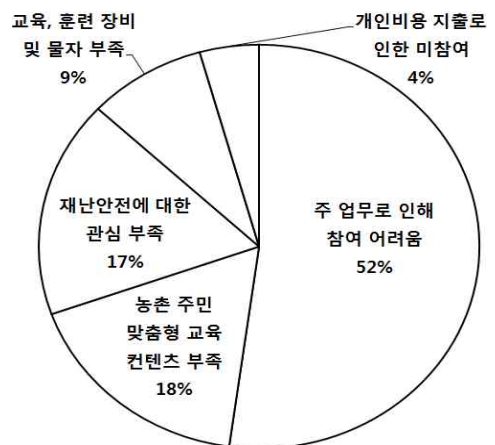


Fig. 5 Problems of Disaster Prevention Education and Training for Residents in Rural Areas

Fig. 4와 같이 농촌지역의 재난안전대책 수준은 긴급구호물자 비축과 기관장의 관심도가 10%로 가장 높았고 그 뒤로 정보 전달(9%), 홍보 활동(8%), 재해위험지구 관리 및 점검(8%), 재난안전장비 구비(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난취약지역에 대한 정비사업, 전문인력 확보, 주민의 관심도, 법·제도 개선 등에 대해서는 다른 대책에 비해 수준이 미흡하다고 응답하였다.

Fig. 5와 같이 농촌지역 재난안전마을 구축을 위한 세부대책 필요도는 농촌지역 주민의 참여 및 지원이 11%로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그 뒤로 예산 지원(10%), 방송시설 설치 및 운영(9%), 비상구조물자 확보(8%), 재난약자에 대한 재난안전대책 마련(8%), 안전장비 확보(8%),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과 연계(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법·제도의 개선이나 재난안전교육 및 훈련의 필요성은 다른 대책에 비해 필요성이 낮았으며 이는 주민 참여를 위한 대책 마련 후 이루어져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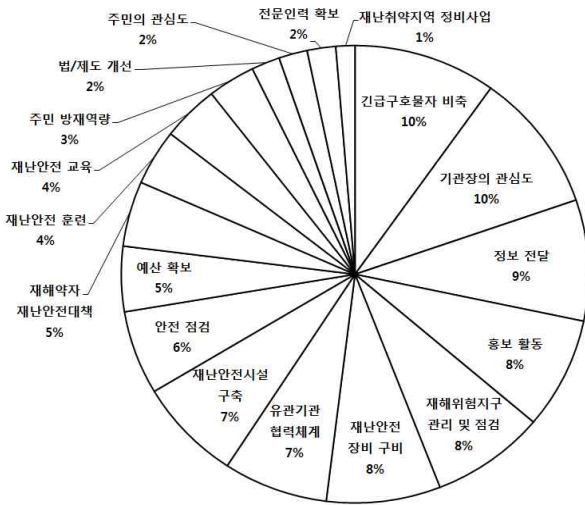


Fig. 6 Level of Disaster Safety Measures in Rural Area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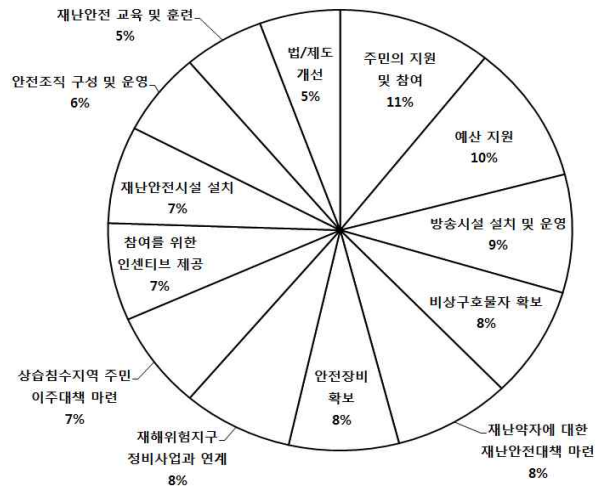


Fig. 7 Necessity of Detailed Measures for Establishing Disaster Safety Villages

4. 농촌지역 재난안전마을 구축 방향 설정을 위한 관련 전문가 의식조사

4.1 의식조사 개요

농촌지역 재난안전마을 구축 방향 설정을 위하여 재난안전, 마을만들기, 도시계획, 건축계획, 도시공학 등 분야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30명을 대상으로 의식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Table 2와 같다.

Table 6. Summary of consciousness survey

Classification	Contents	
Purpose	Use of preliminary data for setting the direction for establishing disaster safety villages in rural areas	
Period	October 1, 2016 - October 31, 2016 (approximately 1 month)	
Respondents	Number of respondents	30 respondents (Male: 21, Female: 9)
	Age	20s (2 respondents), 30s (8 respondents), 40s (8 respondents), 50s (12 respondents)
	Work experience	Less than 5 years (8 respondents), more than 5 years and less than or equal to 10 years (7 respondents), more than 10 years and less than or equal to 15 years (2 respondents), more than 15 years and less than or equal to 20 years (5 respondents), more than 20 years (8 respondents)
	Field of expertise	Various fields including disaster safety, village building, urban planning, construction planning and urban engineering
	Affiliated organization	Corporation (4 respondents), school (7 respondents) and 13 researchers, 4 village-building activists, 2 public officials
Contents of Survey	- Problems of domestic village-building projects - Difficulties in the establishment of disaster safety villages in rural areas - Proper measures to secure a budget for establishing disaster safety villages in rural areas	- Proper direction of project promotion system for establishing disaster safety villages in rural areas - Importance of structural components for establishing disaster safety villages in rural areas - Importance of nonstructural components for establishing disaster safety villages in rural areas

4.2 의식조사 결과

농촌지역 재난안전마을 구축 방향 설정을 위하여 실시한 의식조사는 다음과 같다. 먼저, 국내 마을만들기 사업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단발성 공모사업 위주가 40%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로 사업에 대한 이해도 부족(23%), 주민 참여유도의 어려움(17%), 시설 위주의 설치 사업(13%), 성과 위주의 평가(7%) 순으로 나타났다(Fig. 6).

농촌지역 재난안전마을 구축시 애로사항을 살펴보면 중앙, 지자체, 주민의 연계성 부족이 33%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로 주민의 안전의식 부족(27%), 현장에서의 전문가 지원 부족(13%), 노령인구의 증가(10%), 사업에 대한 행정담당자의 관심 부족(7%), 타 사업과의 연계 어려움(7%) 순으로 나타났다(Fig. 7).

농촌지역 재난안전마을 구축시 적절한 예산확보방안을 살펴보면 정부, 지자체, 마을이 함께 예산을 확보해해야 한다는 의견이 45%로 가장 많았으며 정부와 지자체가 예산을 확보해야한다는 의견이 39%로 그 뒤로 나타났다(Fig. 8).

농촌지역 재난안전마을 구축시 적절한 사업추진체계 방향은 중앙정부, 지자체, 주민이 함께 추진해야한다는 의견이 44%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로 지자체와 주민(34%), 중앙정부와 지자체(13%), 지자체(3%), 주민과 전문가(3%), 주민(3%) 순으로 나타났다(Fig.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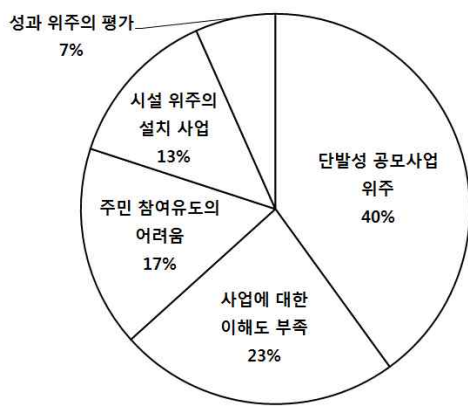


Fig. 8 Problems of Domestic Village-building Projec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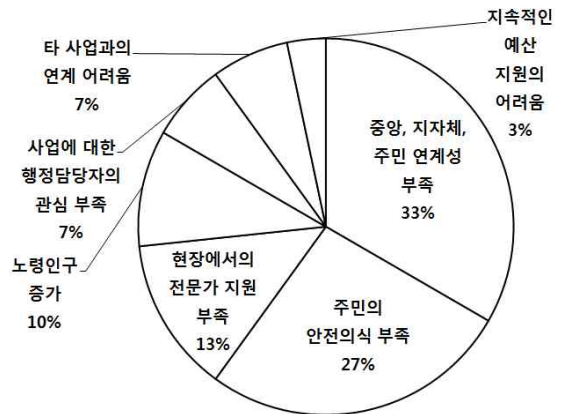


Fig. 9 Difficulties in the Establishment of Disaster Safety Villages in Rural Area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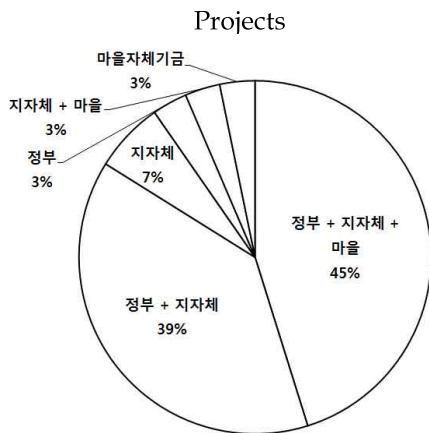


Fig. 10 Proper Measures to Secure a Budget for Establishing Disaster Safety Villages in Rural Area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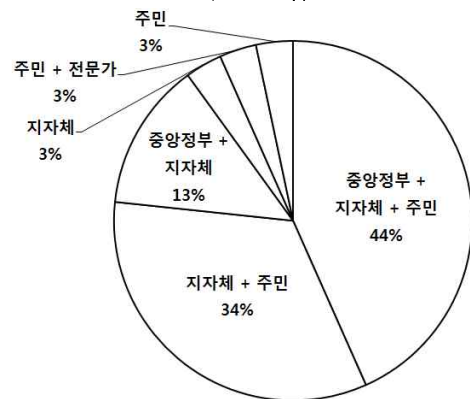


Fig. 11 Proper Direction of Project Promotion System for Establishing Disaster Safety Villages in Rural Areas

농촌지역 재난안전마을 구축을 위한 구조적 구성요소의 중요도를 살펴보면 긴급구호물자의 지원을 위한 협력시스템 구축, 안전개선계획(시설 설치 등) 시 전문적 지원, 시설물 등의 유지, 운영관리계획의 적정성 및 구체성이 87%로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그 뒤로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재난안전장비 확보(83%), 인프라(도로, 통신, 전기, 수도 등)의 개선(77%) 등 순으로 나타났다(Fig. 10).

마지막으로 농촌지역 재난안전마을 구축을 위한 비구조적 구성요소의 중요도를 살펴보면 재난안전대책 수립을 위한 예산 확보가 93%로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그 뒤로 농촌지역 재난약자에 대한 재난안전대책 마련(90%), 농촌지역 주민의 재난안전에 대한 관심 고취(87%), 농촌지역 주민의 재난안전 교육 및 훈련(83%),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점검활동(80%), 예·경보, 예방활동 등 재난안전 정보 전달(7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Fig.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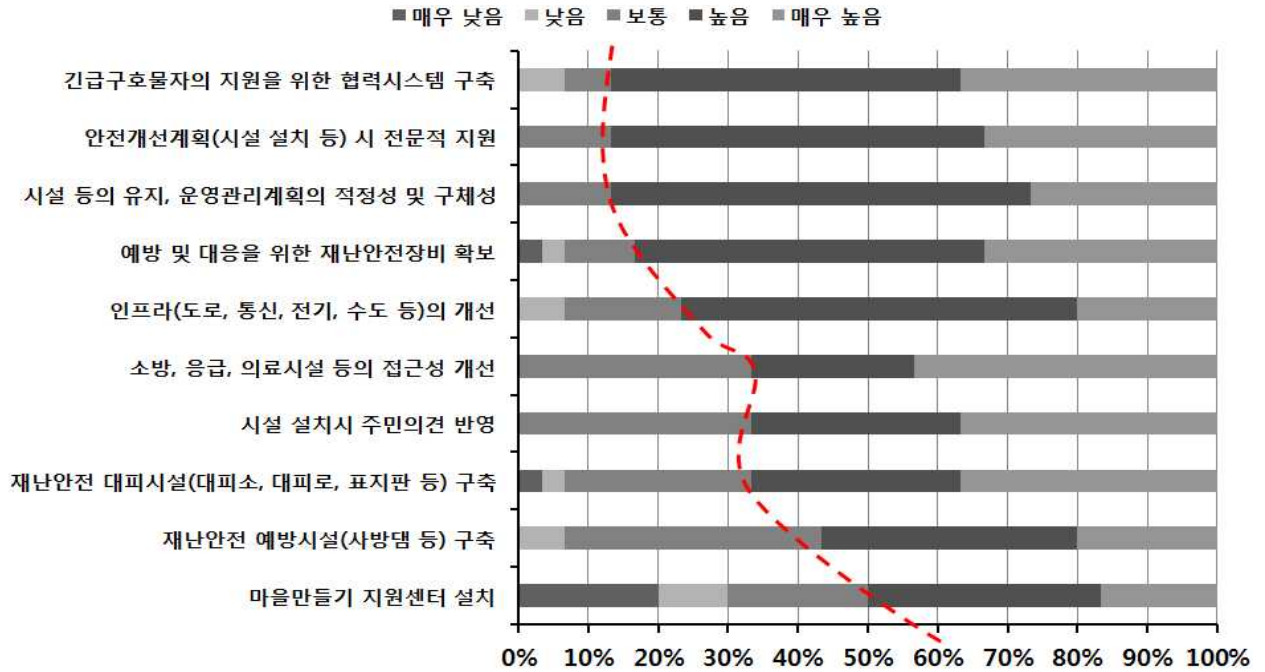


Fig. 12 Importance of Structural Components for Establishing Disaster Safety Villages in Rural Area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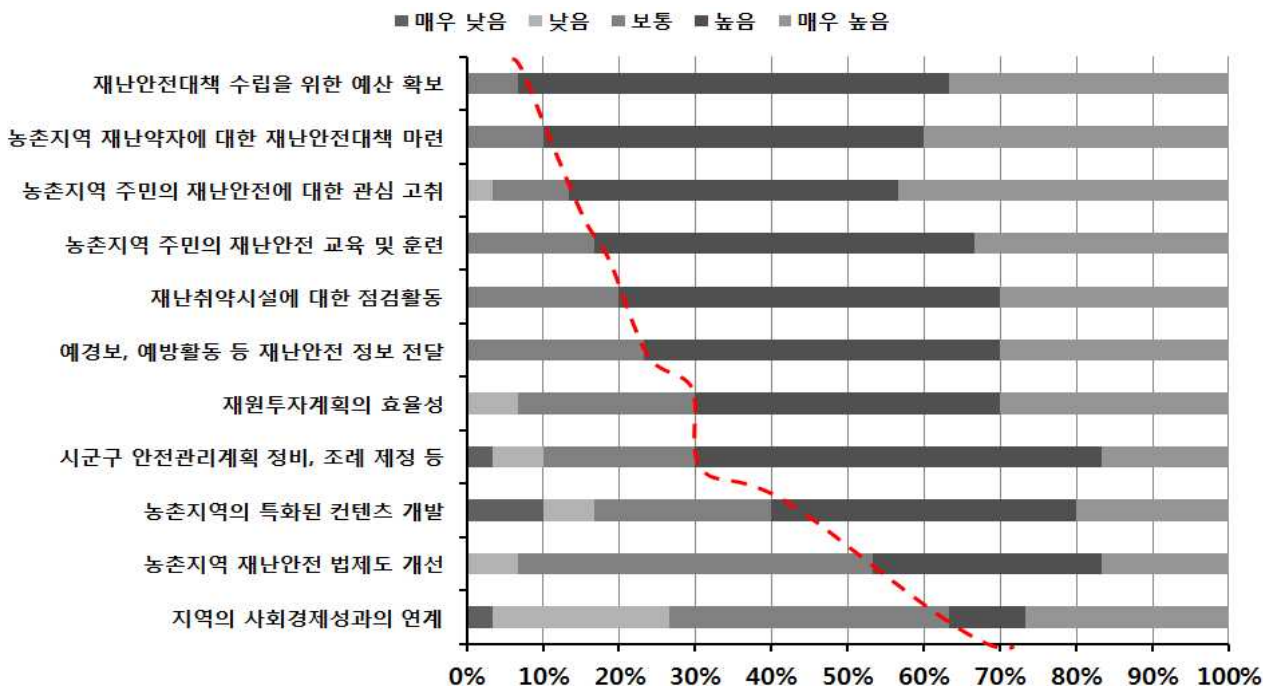


Fig. 13 Importance of Nonstructural Components for Establishing Disaster Safety Villages in Rural Areas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농촌지역 재난안전마을 구축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농촌지역의 재난위험성과 농촌지역 재난안전마을 개념 및 구축 현황을 검토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재난안전 담당자 인터뷰 조사 및 관련 전문가 의식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세부적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재난유형 및 특성을 고려한 재난안전마을이 구축되어야 한다. 농촌지역은 유사유형의 재난으로 인해 유사한 형태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농촌지역은 집중호우나 태풍으로 인해 주택 침수, 농작물 피해, 농경지 침수, 하천 범람, 산사태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통계자료 및 2016년 충청지역 수해피해에서도 유사유형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점단위의 대책이 아닌 면단위 대책인 재난안전마을이 마련되어야 하고 구축 시 재난유형 및 특성을 고려한 세부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농촌지역 재난안전마을 구축 및 운영 시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마을 조성 기금까지 활용할 수 있는 예산확보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재난안전마을이란 마을단위의 대책은 예방사업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도 있다. 또한 전문가 의식조사에서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뿐만 아니라 마을도 포함시키자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그렇지만 마을단위에서 초기에는 마을단위에서 어렵지만 재난안전마을 구축으로 인한 마을기금은 운영 및 유지관리단계에서 활용한다며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예산확보가 조금 더 쉽게 갈 수 있다. 이에 중앙정부부터 지방자치단체, 마을조성 기금에서 활용할 수 있다면 체계적인 지속적으로 운영 및 유지관리 하는데 필요한 예산확보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농촌지역 재난안전마을 구축 후 지속적으로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재공인제도 등 장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하다. 우리나라 마을만들기 사업은 단발성 공모위주의 사업으로 실시하여 지속성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에 농촌지역 재난안전마을 구축 시 지속적으로 운영 및 유지관리할 수 있는 재공인제도, 단계별 승급제도 등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농촌지역 주민이 재난안전마을 구축을 위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세부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과거 실시한 재난안전마을과 유사한 사업에서 주민의 활동도 중요하게 제시되었지만 형식적이고 참여의 부족으로 성공적으로 운영하는데 어려운 부분이 많았다. 특히, 농촌지역의 주민은 농업 등의 주 업무로 인해 참여가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재난안전 담당자도 주민참여가 어려워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인터뷰 시 언급되었다. 이에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몸은 자신이 지켜야한다는 인식의 전환과 함께 마을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인센티브, 세금 혜택 등의 세부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농촌지역 주민의 연령대를 고려한 콘텐츠와 대책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감사의 글

본 연구는 농촌진흥청 공동연구사업(과제번호 : PJ01087303) 및 국립농업과학원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과제번호 : PJ010873032018)의 지원에 의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에 감사드립니다.

References

- [1] Koo, Wonhoi, Choi, Yunjung(2016), Baek, Minho, A Study on the Investigation of Residents' Demands for Establishing a Safe Community against a Disaster in a Rural Area, J. Korean Soc. Hazard Mitig., Vol. 16, No. 5 (Oct. 2016), pp. 55~61
- [2] Wonhoi Koo, Minho Baek(2017), A Research Study on Monitoring for Establishing Disaster Safety Villages in Rural Areas -Based on Disaster Prevention Experience Village in Garisan-ri, Inje-gun-, Journal of the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Vol.13 No.3, pp. 398-404
- [3] Back, MinHo, Lee, JiHyang (2010) Study on the Plan for Disaster Prevention Town Development,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Hazard Mitigation, Vol. 10 No. 3, pp. 53-59.
- [4] Wonhoi Koo, Minho Baek(2018), A Study on the Opinion Survey and Analysis for Establishment of Disaster Safety Village in a Rural Area -Focused on local governments and experts-, Korean Society of Hazard Mitigation conference